

2016년 10월 22일, 성산을 신산리 김옥종씨 댁, 이현정 조사.
김옥종(남, 1924년생, 성산을 신산리)

[조사자] 이 동네에서는 도깨비 봤던 한 애긴 엇입니까?

[제보자] 옛말에. 잇어.

[조사자] 잇어마씨? 헤 주십서.

[제보자] 저, 만물 쪽으로, 내려온 건 직접 우리 할망이.

[조사자] 할망이.

[제보자] 응, 본 건디. 그 우리 셋처남, 아, 저, 족은처남 각시라. 그 온평리 사람인디. 그 어른이 죽식을 나니까 젓이 안 나와. 경 허니까 이제, 그, 어디 만물 물을 질어 당, 나는 물, 나는 물을 질어당 먹으면 젓 나온덴 행 그리 행 말이 잇이라라. 그 물 질레, 시누이 성제가 갖어. 강, 으데 가문 그 지척 양혜장 그 짓은 에염에 밧 이 잇는데. 그 밧이 땅이 바닷물 들, 저, 것이라라 좀 높으게 싹어. 거난 나는 물을 질레 밤이 사, 그, 이, 사람 엇을 때, 아니 다, 보일 때 가는 거지. 사람 보이 민 안 댜다 헛어.

[조사자] 부정타부난예.

[제보자] 응, 사람 안 보인 정도로 헐, 밤중에 갖어. 갖는다. 아이, 뵈이, 저, 근대바구리 잇잖아. 저게 저, 저거, 저.

[조사자] 예, 예.

[제보자] 저거 행그네 옆동에 찌곡, 곱닥허게 치메 저고리 한복 입은 여자가 들어오거든.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우리 할망은 밧더레 그 담 에염드레 곱안 ?만이 보니까. 쭈욱 허게 일어나서 이 앞쪽 들러레 들어오더라 헤연. 근대바구니 쪽으로.

[조사자] 겐?

[제보자] 그, 그, 그.

[조사자] 그게 도깨비라?

[제보자] 도깨비.

[조사자] 아, 그 밤에?

[제보자] 밤에. 계난, 그, 거시기 으기 가민은 지금 집이 있어. 저, 그, 좀 지금 불교 짓은 할망이 거기 사는다. 그 집이 있어. 그디 옛날에, 그, 부칩이 살아났어.

[조사자] 부칩이?

[제보자] 어, 부○○이엔 헌 분이. 근디 원래가 그 사람이 왜정 대부떠 운전수 질을 헌 거라. 일본서부떠도. 그, 또 낭중에 일본 그, 전쟁 때에 저, 거시기 또, 운전수로 헤연에 늘, 군인 생활허고 헤난 사람인다. 그, 이, 으기 살명 이젠, 그, 옛날 차 하나, 한 차 사네. 옛날 도요다엔. 헌 차가 있어. 거 산, 그 운용을 헛어게. 헌디, 그 사람 뭐냐 허면. 구신이 뭐 있느냐고 엇댄혀. 헌디 그 앞으로 득, 도, 도깨비가 이레 들어오거든.

“하하, 으 구신이 있는 거로구나!”

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헸. 그 사람 지금 우리보다 혼 예서일곱 나 우인디, 죽 어비엿지. 그 동생은 으디 저 도로가에 그 지름집이 동생은 살고. 그 원래가 그 사람이 ‘구신이 뭐 있느냐’고.

결국은 그걸 보니까.

“하이고, 이거 구신이 있는 거로구나!”

[조사자] 겐 그 부칩에 그 부씨 어르신도 그, 귀신을 본 거구나.

[제보자] 본 거주. 봐 부난, 하 이, 그, 저 ‘있는 거로구나’ 헛지.

[조사자] 어떻 도깨비는 경 곱닥한 여자만 경 나타나는 건고마씨?

[제보자] 그, 모르주. 어떻게 되는 것이.

- 핵심어 : 여자, 둔갑, 도깨비, 한복, 구신(귀신), 부칩